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6년 1월 23일(월)

1st

■ 발행인 : 지재식 ■ 편집인 : 최광수 ■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 031-727-4815 ■ 홈페이지 :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완성을 향한 새출발을 시작했습니다”

9대 집행부, 혁신을 통한 새출발 다짐
승진 전환직 포기하고 조합간부의 지도력 및 도덕성 강화할 것

노동조합은 6일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24주년 기념 및 제9대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노동조합의 쇄신을 통해 관성화된 조합간부의 활동방식을 변화시켜 가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간부들에게 향후 3년은 견디기 힘든 나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지도·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기강을 확립하고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노동조합에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선거에 사측이 개입하거나 방조한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노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의 확고한 행동 ▲노사화합차원의 대서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목소리와 발전적인 대안을 말해 주어 위대한 KT를 만들자”고 말했다.

IT연맹 배호주 위원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집행부 연임을 통해 강력한 조직력 기초를 확립하였고 내부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

다고 들었다”며 “KT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변화의 희망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NTT노동조합 소지 모리시마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세계적인 브로드밴드 선진국인 한국과 이를 이끌고 있는 KT노동조

합과 지재식위원장이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간부들은 ▲일체의 전환직 및 승진을 하지 않을 것 ▲헌신하는 조합간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선거에 사측이 개입하거나 방조한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노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의 확고한 행동
▲노사화합차원의 대서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부, 도덕적인 조합간부로서 모범이 될 것 ▲노동조합의 지도집행력을 높이고 통일 단결된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간부가 될 것 ▲사측으로부터 당당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 등을 결의했다.

특히 전환직 및 승진포기 결의는 지난해 비리로 인해 지도력 및 도덕성이 약화된 노동계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지재식 위원장 창립기념사 및 취임사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조합원이 주인되는 KT를 만들겠습니다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간부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간부의 도덕성 및 신뢰도를 강화하고 조합간부의 거듭남을 통해 현상과 호흡하는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지도·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기강 확립에 나서겠습니다.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을 분열시켜 힘을 약화시키려는 안됩니다.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노동조합에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중앙상집과 지방본부 상집이 모범을 보이고 전체 조합간부가 함께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쇄신과 함께 9대 집행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좀더 확고한 원칙을 가질 것입니다. 사측의 지배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미 공문을 통해 알렸지만 각종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선거에 사측이 개입하거나 방조한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노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 동안 있어왔던 노사토론회와 노사대표자간 간담회가 좋은 선례입니다. 이와같은 제도를 정례화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가 고용안정에 대한 확고한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이 없다고 강요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행동이 보여질 때야 비로소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노사관계의 화합차원에서 업무

다. 2007년 전일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되겠다’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큰 희생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조합간부들이 바로 노동조합이며, 위원장이라는 주인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3년 활동이 KT노동조합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유혹의 사슬을 끊고 완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봅시다.

입니다. 비정규직, 자회사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찾아가겠습니다. 특히 통신정책에 있어서도 규제일변도 정책을 탈피해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듯 안으로는 조합간부를 혁신하고 밖으로는 투명한 노사관계와 굳건한 연대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질적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할 때가 많습니

다. 2007년 전일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되겠다’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큰 희생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조합간부들이 바로 노동조합이며, 위원장이라는 주인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3년 활동이 KT노동조합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유혹의 사슬을 끊고 완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봅시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9대 집행부는 조합간부의 혁신을 통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언제나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명절을 보내십시오.

현장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다시 댈 것입니다.

민주노총 임원 후보 등록 마감 2월 10일 투표

민주노총 임원 후보 등록이 1월 20일 마감됐다.

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조에 이정훈(위원장) 이해관(사무총장), 조준호(위원장) 김태일(사무총장), 김창근(위원장) 이경수(사무총장)가 등록을 마쳤다.

민주노총은 올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산별전환 등 중요 사업이 산적해 있어 차기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편, 민주노총 임원은 2월 10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 프로필

후보등록순으로 나열합니다



이정훈
- 전 민주화추진연맹 대경본부 수석본부부장



이해관
- 전 KT노동조합 부위원장



조준호
-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 현 기사자동차 조합원



김태일
-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 현 한국생신선분부 위원장



김창근
- 전 금속노조 위원장



이경수
- 전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준 조합원동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고용안정과 권익을 위해 더욱더



•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습니다



조합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저는 제 9대 서부 지방본부의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더불어



발로 뛰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03년 취임 초기부터 조합원 동지들과 약속한



조합원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 대구지방본부를 맡겨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손과 발로 뛰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KT노동조합 9대 집행부가 힘차게 출범합니다.



•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준 조합원동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고용안정과 권익을 위해 더욱더

•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습니다

• 저는 제 9대 서부 지방본부의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더불어

•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03년 취임 초기부터 조합원 동지들과 약속한

• 대구지방본부를 맡겨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KT노동조합 9대 집행부가 힘차게 출범합니다.

9대집행부 지방본부위원장 인사말

자기혁신을 통해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 9대 출발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조합간부 동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 “완성을 향한 새 출발”의 출발선상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조합원여러분의 희망의 선봉에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 고용안정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건설의 기치를 걸고 우리들의 9대 집행부가 기운찬



살맛나고 신명나는 충북지방본부를 만들겠습니다

• “새인물” “새희망”의 기치로 뜻을 올린 우리 충북 지방본부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지



현장에서 뛰며, 현장에서 들겠습니다

• 희망찬 2006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해 9대 집행부가 힘찬



조합원을 존중하는 참된 지방본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지난 선거를 통하여 동지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9대 출발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조합간부 동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완성을 향한 새 출발”의 출발선상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 고용안정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건설의 기치를 걸고 우리들의 9대 집행부가 기운찬

• “새인물” “새희망”의 기치로 뜻을 올린 우리 충북 지방본부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지

• 희망찬 2006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해 9대 집행부가 힘찬

• 지난 선거를 통하여 동지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증권거래법 제37조의7 제2항
 ②제1항의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7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②법 제54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금융감독원 또는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외이사 진출 투쟁 “또 다시 앞으로”

노동조합, 우리사주조합 지분 1천만주 확보운동 전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

성명 송덕용

소속 한울회계법인 이사

경력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인문학과 졸업
- 현 한울회계법인 이사
- 현 녹색병원 감사
- 93-97 노동정책 연구소 연구원
- 97 울산 참여연대 설립위원 및 기획위원
- 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경영자문 위원
- 현 SK노동조합 경영자문 위원
- 현 대우조선 매각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 현 민주노동당 경제 민주화 운동본부 정책위원
- 현 민주노동당 부산지부 정책위원장
- 현 민주노동당 우리사주조합 프로젝트 위원
- 현 민주노동당 정부지부 매각 방향 관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현 참여연대 빈부격차 조정위원회 프로젝트 위원회 전문위원
- TMI컨설팅

노동조합이 또다시 사외이사를 진출시키기 위해 깃발을 올렸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KT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 등을 선출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이다.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도 매우 독립적이며 회계감사, 업무감사 등의 권한이 있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자의 부정에 대한 감시기구로서 경영자의 재무보고과정 전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즉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전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공정한 재무보고서 작성에 기여하며 주주와 경영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흐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의 회사대표권(상법 제394조 제1항), 이

사위법행위위정청구권(상법 제402조), 회계감사권과 업무감사권(상법 제412조), 이사회로부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권한(상법 제412조의 2),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 3), 자회사의 조사권(상법 제412조의 4), 재무제표 등의 제출을 받을 권한(상법 제447조의 3) 등을 가진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을 노동조합이 진출시킬 수 있다면 그동안의 고용불안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문제시돼 왔던 투자축소, 외국인외의 고배당 압력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혹자들은 불가능한 일에 열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 시 대주주는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이 결집한다면

승산이 있다. 특히 증권노조의 협조 또한 매우 우호적이다. 지난해 소액주주로부터의 결집을 모아준 현대증권노동조합이 또다시 함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증권노동조합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열쇠는 우리사주조합지분에 달려 있다. 노동조합이 얼마나 많은 우리사주조합지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올해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나게 된다. 이에 노동조합은 올해 우리사주조합지분 1천만주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략 18,270,000주이다. 그러나 개인에 배정되지 않고 조합계정으로 존재하는 주식은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15,122,000주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만 한 가치는 있다.

어떤 조합원들은 통신환경이 좋지 못하

노동조합이 경영참여를 해서 소란스럽게 만들일이 무엇이나고 따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러사례를 볼 때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례는 극히 보기 드물다. 감사위원을 진출시킨 현대증권의 경우 훨씬 투명해진 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정보가 공개되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브릿지 증권은 노동조합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게 되자 외자에 의한 자산유출이 중지되었고 다시금 성장의 활로를 찾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3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지난 부정부패의 여파를 넘어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최소한 내가 바로 KT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불안의 KT를 희망을 만들어 가는 KT로 만들어가자.

interview 증권노조 브릿지증권지부장 강승균

“조합원 모두가 하나돼 투쟁하자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됐다”



브릿지 증권 노동조합은 외국인에 의해 회사가 청산의 위기까지 맞았으나 조합원들의 단결로 외국자본을 물리치고 토종자본과 공동경영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금은 사외이사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회사의 주인임을 인식해가고 있다.

노동조합이 직접 경영권 인수에 개입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브릿지 증권은 당시 외국 자본인 BIH가 지분 55%를 차지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했다. 이후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주식의 90%까지 확대해갔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자산을 매각해 4000억원이 넘는 브릿지증권의 자산이 지금 1000억원대로 줄었다. 또한 직원이 800여명이었으나 계속적인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120여명으로 줄게 됐다.

지난해에는 회사청산의 위기까지 닥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BIH의 대주주로 알려진 미국의 연기금까지 찾아가 호소하고 주지사를 만나 BIH의 부도덕한 투자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브릿지 증권 청산의 부당함을 알렸다. 국내언론도 우리의 투쟁을 긍정적으로 보도해주었고 결국은 청산이 철회됐다.

청산이 철회되면서 국내 토종자본인 골든브릿지와 노동조합이 브릿지증권의 공동인수를 모색했고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 10여억원을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골든브릿지와 약정서를 체결해 경영권과 우리사주조합 확대 등을 합의했다.

브릿지증권은 외국인자본의 투자금 빼가기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고통과 불안이 극심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2000년부터 시작된 과도한 인력감염과 회사의 해체위기에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극심했다. 또한 브릿지증권은 일은 증권과 리츠증권이 합병된 회사로서 구성원들의 정서차이도 컸었다. 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5년여 동안 계속된 투쟁과 파업 속에 조합원들이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전체조합원을 하나로 묶는 큰 기회가 됐다.

지금 우리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을 모두 알고 있을 만큼 의식이 높아져 있다.

현재 브릿지 증권 경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인수시 약정서를 통해 사외이사 1인, 상근이사 1인을 조합추천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사외이사 1인이 노동조합 추천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근이사는 여러가지 경영여건을 고려해 노동조합이 추천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조합의 대변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이에 앞서 노동조합이 경영참여를 하면서 사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저는 조합원들에게 과거 투쟁하던 시기보다 노동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는 말로만 주인이 아닌 지분까지도 주인이니 만큼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처럼 회사와 노동조합의 함께 하면서 계속 작자가 낫던 브릿지 증권이 2월경이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인수후 브릿지증권과 조합원들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난 10월에 인수를 했고 지금까지는 짧은 기간이라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진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조합원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회사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와함께 투쟁을 통해 얻는 자신감에 안

주하지 않고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 생각이 있다. 아무리 우호적인 자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용자의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동경영이라하더라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단체협약을 통해 공동경영부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를 구축할 생각이다.

브릿지증권, 대우건설, LG카드 등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 우리사주 조합 인수참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활동과 함께 향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입돼 있는 산별노조인 증권노조의 힘이 컸고 이밖에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학자, 변호사 등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 이러한 투쟁을 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인수참여에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많은 것도 알게 됐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대책위원회 모임을 만들었다. 지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향후에는 외국인에 의한 우리기업의 잠식을 막고 노동조합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KT노동조합도 공동대책위원회와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KT노동조합은 경영참여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외국인 주주에 대응해 단기 성과중심이 아닌 투자확대와 같은 장기발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KT노동조합은 2004년부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KT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KT는 6.5%라는 우리사주조합과 자사주 25%라는 조건은 매우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 먼저 우리사주조합을 회사측이 장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이 노동조합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임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다.

또한 향후 우리사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간의 내부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상으로 우리사주주인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